

부산지역 일부 청소년의 패스트푸드, 음료 섭취와 사회성, 분노 표현과의 관계

류은순 · 채인숙¹⁾ · 이경혜^{2)†}

부경대학교 식품생명공학부, ¹⁾제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²⁾창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Interrelations Among Fast Food, Beverage Intake and Sociality, Anger Expression of Adolescents in the Busan Area

Eun-Soon Lyu, In Sook Chae¹⁾, Kyung-Hae Lee^{2)†}

Division of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Pukyong National University, Busan, Korea

¹⁾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²⁾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Gyeongnam,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 of the fast food and beverage intake on sociality and anger expression of adolescents.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the adolescents of 599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Busan.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preference-intake frequency analysis (PEA) on fast food grid, high preference and high intake frequency were 'dukbokki', 'chicken' and 'mandu' and low preference and high intake frequency were 'ramyon', 'gimbab'. PEA on beverage grid, high preference and high intake frequency were 'milk-dairy product', 'fruit juice', 'isotonic beverage' and low preference and high intake frequency were 'carbonate drink'. The intake frequency of 'pizza', 'sandwich', 'udong', and 'dukbokki' ha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sociality. 'Hamburger', 'chicken', 'french fry', 'gimbab', 'mandu', and 'ramyon' showe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anger-out. The intake frequency of 'carbonated drink' had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anger-control, but 'green tea' showed a positive relation with it. 'Carbonate drink', 'isotonic beverage', 'coffee', and 'milkshake' had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anger-out. The explanation power (R^2) of intake of fast food and beverage on sociality was 0.019~0.038, and 'carbonated drink' and 'coffee' had a negative influence on sociality. The explanation power (R^2) of intake of fast food and beverage on anger expression was 0.011~0.041, and 'carbonated drink' had a negative influence on anger-control. 'Hamburger', 'carbonated drink', and 'coffee' showed a positive influence on anger-out. From these results, it was necessary to develop the practical eating-out habits program on proper fast food and beverage choice for adolescents.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13(6) : 829~839, 2008)

KEY WORDS : intake frequency · fast food · beverage · sociality · anger expression · adolescents

서 론

청소년기는 바쁜 일과에 쫓겨, 결식현상이 많으며 간식과 매식을 자주하고 맛, 기호성, 편이성 및 저렴한 가격의 식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다. 특히, 식품 및 외식산업의 발달과

식생활의 서구화는 바쁜 청소년들의 음식섭취 양상에도 큰 영향을 주어 패스트푸드의 선택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Cho & Han 1996; Jeong & Kim 2001; Lyu 등 2006). 패스트푸드는 광우병, 조류독감 등 식품안전에 대한 불신의 증폭과 잠재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균형된 영양소의 섭취에 따른 영양불량 문제 등에 대한 많은 보고(Chen & Lachance 1974; Shannon & Parks 1980; Christine 등 2001; 최 2003; Kim & Park 2005)로 인해 패스트푸드에 대한 선호도는 하락하였지만 가격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청소년 등 주요 젊은 고객층의 취향에 맞춘 업계의 지속적인 가격할인 경쟁과 웰빙햄버거 출시 등을 통해 패스트푸드는 여전히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장 2007).

접수일: 2008년 8월 28일 접수

채택일: 2008년 12월 9일 채택

†Corresponding author: Kyung-Hea Lee,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9 Sarim-Dong, Changwon, Gyeongnam 641-773, Korea

Tel: (055) 213-3514, Fax: (055) 281-7480

E-mail: khl@changwon.ac.kr

패스트푸드와 잘 어울리는 음료로는 콜라, 사이다 등의 탄산음료가 있으며 패스트푸드점에서도 세트메뉴로서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를 같이 제공하고 있어 패스트푸드 섭취량과 탄산음료 섭취량이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보고되었다 (Baric 등 2001; Kang 등 2006). 2001년 청소년의 36.2%가 햄버거를 1회/주 이상 섭취하고 72.0%는 탄산음료를 1회/주 이상 섭취한다고 보고하였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2). 2006년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에는 청소년의 다빈도 식품 및 1인 1이 평균 섭취량에서 콜라가 6위를 나타내 청소년의 탄산음료 섭취가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국가청소년위원회 (2006)에서도 청소년의 음료류 섭취가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탄산음료의 섭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영양소 섭취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탄산음료 섭취군의 에너지 및 지방섭취량이 비 섭취군에 보다 유의적으로 높았고 과일 및 채소류의 섭취량은 낮아 식생활 패턴이 불량한 경향을 보이며 특히 과체중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Kang 등 (2006)의 연구에서도 평소 식사량이 과식인 청소년의 경우, 탄산음료 섭취빈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므로 탄산음료 과잉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서 영양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청소년의 패스트푸드 및 음료섭취는 신체적 문제 뿐 만 아니라 정서적·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Seo (1992)는 패스트푸드 이용집단이 이용하지 않는 집단보다 안정성은 낮고 충동성과 사회성이 높았고, Her 등 (2007)도 패스트푸드 섭취빈도는 분노표출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분노통제와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여 패스트푸드는 건강 뿐 아니라 인성과도 관계가 있어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패스트푸드 섭취에 대한 식생활 지도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Pollitt (1994)는 청소년들이 패스트푸드를 빨리 섭취하는 경우, 이는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충동성과 상호작용하여 자기조절 능력을 저하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Gutfeld & Rao (1993)도 지방이 많은 간식, 인스턴트의 단 음식 등은 부정적인 기분을 느끼게 한다고 보고하였다. Chung & Park (1995)은 과잉행동을 하는 학생이 설탕 섭취량 및 음료 섭취량 섭취가 많은 경향을 보인다고 보고하였고 Her 등 (2008)도 탄산음료 섭취가 분노표출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Jacobson (2005)은 탄산음료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 이로 인해 과량의 에너지 섭취를 조장함으로써 학생들이 활동 향진증, 공격성 및 주의산만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학교 내에서의 패스트푸드 및 탄산음료 판매에 대한 규제 및 정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었고, 국

내에서도 2007년 8월, 초·중·고교의 99.8%가 학교매점에서의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시켰다. 그러나 패스트푸드 및 탄산음료는 청소년들이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이러한 식품 섭취에 대한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자주 섭취하는 패스트푸드류 및 음료류를 세분화시켜 각각의 패스트푸드 및 음료 종류에 대한 기호도 및 섭취빈도를 조사하고 이들 패스트푸드류 및 음료류와 청소년의 인성과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청소년의 식생활을 올바르게 지도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조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지역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5개교로 총 10개교를 선정하여 각각 2학년 학생 300명씩 총 6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방법은 개발한 설문지를 각 학교의 담임선생님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직접 배부하여 학생들이 설문지에 직접 기록하는 자기기록 방법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배부된 600부 설문지 중 총 599부 (회수율 : 99.0%)가 회수되었으며 모두 통계처리에 사용하였다. 설문조사 시기는 2006년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수행하였다.

2. 연구내용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는 기존의 문헌 (Chon 1996; Chon 등 1998; Park 1999; Jeong & Kim 2001; Lyu 등 2006)을 기초로 연구자가 설문 문항을 개발하였고, 개발한 설문 문항은 35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에서는 설문문항에 대한 이해도 및 내적일관성을 분석한 결과, 사회성 및 분노표현의 Cronbach의 α 값이 0.70이상이 나타났다. 예비 조사 후 설문문항은 본 조사에 적용 가능하도록 수정·보완 후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패스트푸드를 '미리 조리되어 레스토랑에서 빨리 제공되는 뜨거운 음식' (Cambridge Learner's Dictionary)이라는 정의와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에 의한 '가게에서 간단한 조리를 거쳐 제공되는 음식으로 주문하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는 정의, 야후 백과사전 (PASCL)의 '햄버거·치킨·라면·김밥 등과 같이 간단한 설비로 만들 수 있는 음식'이라는 정의에 근거하여 햄버거, 치킨, 피자 외에 한국식 패스트푸드로 김밥, 떡볶이, 라면 등도 패스트푸드로 분류하여 비교·분석하였다.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학교, 한달 용돈 등으로 구성하였다.

2) 패스트푸드 및 음료에 대한 선호도 및 섭취빈도

패스트푸드에 대한 선호도 및 섭취빈도는 햄버거, 치킨, 피자, 떡볶이, 라면 등 총 11 종류를 대상으로 하였다. 음료에 대한 선호도 및 섭취빈도는 탄산음료, 이온음료, 과일주스, 우유 및 유제품 등 총 9 종류를 대상으로 하였다. 측정척도에서, 선호도 항목은 5점 척도법(1: 매우 싫어한다 ~ 5: 매우 좋아한다)을 이용하였고 섭취빈도 항목은 5점 빈도법(1: 거의 먹지 않는다, 2: 1회 정도/1개월, 3: 1회 정도/2주일, 4: 1회 정도/1주일, 5: 2회 정도/1주일)을 이용하였다.

3) 사회성 및 분노표현

인성에 대한 항목은 사회성과 분노표현 정도에 대한 자기평가를 실시하였다. 사회성 항목의 경우, 이 등(2000)이 사용한 사회성 평가문항(22문항)을 이용하였으며 질문 문항에 대해 ‘예’는 긍정적인 의미로 1점을, ‘아니오’는 부정적인 의미로 0점으로 하였다. 분노표현 평가항목(24문항)은 한국판 STAXI(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를 이용하였다(Chon 1996). 분노는 표현방식에 따라 분노억제(Anger-in : 분노경험을 외현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 삭이려 하는 분노표현 양식: 8문항), 분노표출(Anger-out : 분노경험을 언어적 혹은 신체적으로 외부로 직접 드러내는 통제되지 않는 분노표현 양식: 8문항), 분노통제(Anger-control : 화가 났다는 것을 인식하고 화를 진정시키기 위해 여러 방략을 사용하는 것: 8문항)로 구분하였다. 측정척도는 4점 척도(1 : 전혀 아니다 ~ 4 : 언제나 그렇다)를 이용하였다. 분노표현 방식에 대한 신뢰계수는 Cronbach's α 계수가 0.7983으로 모든 항목에서 Nunnally (1967)가 제시한 0.70 수준을 만족시켰다.

3. 통계처리

조사된 자료는 SPSS 10.0 program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빈도 및 백분율을 및 교차분석,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패스트푸드 및 음료 섭취빈도와 인성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을 이용하였으며 유의도는 양쪽검증방법을 사용하였다. 각 변수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Stepwise selection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분석의 유의수준은 $p < 0.05$ 이하에서 검증하였다.

결 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에 대한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중학생은 50.9%, 고등학생은 49.1% 이었다. 중학생 중 남학생은 48.7%, 여학생은 51.3%이었고 고등학생 중 남학생은 49.0%, 여학생은 51.0%로 나타났다. 한 달 용돈은 중학생은 20,000~40,000원 미만인 44.3%, 20,000원 미만도 38.3%로 나타났고, 고등학생은 20,000원~40,000원 미만은 28.2%, 40,000원~60,000원 미만은 23.8%이었고 80,000원 이상도 16.0% 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고등학생의 용돈이 중학생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패스트푸드에 대한 선호도 및 섭취빈도

패스트푸드에 대한 선호도 및 섭취빈도에 대한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패스트푸드에 대한 선호도 순위는 ‘치킨’ > ‘피자’ > ‘떡볶이’ > ‘감자튀김’ > ‘김밥’ > ‘햄버거’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햄버거’와 ‘치킨’에서 유의적($p < 0.01$)으로 높았고, ‘샌드위치’, ‘떡볶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적($p < 0.05$)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고등학생에 따른 차이에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치킨’, ‘피자’, ‘샌드위치’에서 유의적($p < 0.05$)으로 선호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패스트푸드에 대한 섭취빈도 순위는 ‘라면’ > ‘떡볶이’ > ‘만두’ > ‘김밥’ > ‘치킨’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김밥’에서 유의적($p < 0.05$)으로 높게 나타났고, ‘샌드위치’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적($p < 0.05$)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고등학생에 따른 차이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School		Total
	Middle	High	
Gender			
Male	149 (48.8) ¹⁾	144 (49.0)	293 (48.9)
Female	156 (51.2)	150 (51.0)	306 (51.1)
Allowance (won) / month			
< 20,000	117 (38.3)	52 (17.7)	169 (28.2)
≤ 20,000 - < 40,000	135 (44.3)	83 (28.2)	218 (36.4)
≤ 40,000 - < 60,000	35 (11.5)	70 (23.8)	105 (17.5)
≤ 60,000 - < 80,000	9 (2.0)	25 (8.5)	34 (5.7)
≤ 80,000 - < 100,000	6 (2.0)	31 (10.5)	37 (6.2)
100,000 ≤	3 (1.0)	33 (5.5)	36 (6.0)
Total	305 (50.9)	294 (49.1)	599 (100.0)

1) N (%)

Table 2. Preference and intake frequency of fast food by gender and school

	Item	Gender			School			Total
		Male	Female	t-value	Middle	High	t-value	
Preference	Hamburger	3.96 ± 0.82 ¹⁾	3.67 ± 0.79	4.366**	3.79 ± 0.81	3.84 ± 0.83	0.799	3.81 ± 0.82
	Chicken	4.26 ± 0.78	4.08 ± 0.76	2.774**	4.09 ± 0.79	4.25 ± 0.75	2.490*	4.16 ± 0.77
	Pizza	4.03 ± 0.88	3.90 ± 0.79	1.892	3.90 ± 0.87	4.04 ± 0.80	2.101*	3.97 ± 0.84
	Sandwich	3.56 ± 0.97	3.72 ± 0.86	2.174*	3.55 ± 0.6	3.73 ± 0.87	2.425*	3.64 ± 0.92
	Hotdog	3.48 ± 0.94	3.34 ± 0.96	1.712	3.41 ± 0.98	3.41 ± 0.92	0.030	3.41 ± 0.95
	French fry	3.88 ± 0.93	3.84 ± 0.88	0.503	3.83 ± 0.88	3.90 ± 0.93	0.944	3.86 ± 0.90
	Gimbab	3.89 ± 0.90	3.79 ± 0.91	1.287	3.84 ± 0.93	3.83 ± 0.88	0.172	3.83 ± 0.91
	Udong	3.79 ± 0.99	3.84 ± 0.87	0.674	3.82 ± 0.94	3.80 ± 0.92	0.239	3.82 ± 0.93
	Dukbokki	3.82 ± 0.93	4.05 ± 0.88	3.018**	3.92 ± 0.88	3.95 ± 0.95	0.322	3.94 ± 0.91
	Mandu	3.84 ± 0.97	3.74 ± 0.91	1.266	3.76 ± 0.96	3.82 ± 0.91	0.800	3.79 ± 0.94
	Ramyon	3.75 ± 0.98	3.67 ± 0.95	0.983	3.72 ± 0.99	3.68 ± 0.95	0.487	3.70 ± 0.97
	Total		3.84 ± 0.60	3.78 ± 0.52	1.302	3.78 ± 0.56	3.87 ± 0.68	1.164
Intake frequency	Hamburger	2.05 ± 1.00	1.94 ± 0.92	1.293	1.83 ± 0.86	2.17 ± 1.03	4.422**	1.99 ± 0.96
	Chicken	2.37 ± 0.91	2.28 ± 0.88	1.167	2.23 ± 0.90	2.24 ± 0.88	2.545*	2.32 ± 0.90
	Pizza	1.96 ± 0.81	2.00 ± 0.84	0.559	1.94 ± 0.79	2.03 ± 0.87	1.341	1.98 ± 0.83
	Sandwich	1.77 ± 0.01	1.95 ± 1.07	2.003*	1.81 ± 1.01	1.91 ± 1.07	1.240	1.86 ± 1.05
	Hotdog	1.76 ± 1.02	1.72 ± 0.99	0.494	1.85 ± 1.11	1.63 ± 0.86	2.686**	1.74 ± 1.00
	French fry	2.08 ± 1.02	1.98 ± 0.98	1.259	1.94 ± 1.02	2.12 ± 0.97	2.230*	2.03 ± 1.00
	Gimbab	2.54 ± 1.24	2.33 ± 1.25	2.054*	2.40 ± 1.29	2.46 ± 1.20	0.533	2.43 ± 1.25
	Udong	1.98 ± 0.04	2.06 ± 1.00	0.888	1.96 ± 0.99	2.08 ± 1.05	1.363	2.02 ± 1.02
	Dukbokki	2.74 ± 1.22	2.85 ± 1.23	1.130	2.81 ± 1.28	2.78 ± 1.17	0.298	2.80 ± 1.23
	Mandu	2.59 ± 1.22	2.41 ± 1.15	1.859	2.45 ± 1.20	2.55 ± 1.17	1.032	2.50 ± 1.19
	Ramyon	3.02 ± 1.38	2.91 ± 1.33	1.055	2.91 ± 1.37	3.01 ± 1.35	0.924	2.96 ± 1.36
	Total		2.49 ± 0.79	2.27 ± 0.78	1.066	2.19 ± 0.66	2.28 ± 0.63	1.617

*: p < 0.05 , **: p < 0.01, 1) Mean ± SD

에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햄버거’(p < 0.01), ‘치킨’(p < 0.05), ‘감자튀김’(p < 0.05)에서 섭취빈도가 높았고, 핫도그는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유의적(p < 0.01)으로 섭취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패스트푸드에 대한 선호도와 섭취빈도에 대한 격자도 분석 결과를 Fig. 1에 제시하였다. 선호도 및 섭취빈도에 대한 평균점수를 기준축으로 하여 선호도 및 섭취빈도가 평균점수보다 높은 패스트푸드는 ‘치킨’, ‘떡볶기’, ‘만두’로 나타났고 기호도는 낮으나 섭취빈도가 것은 ‘라면’, ‘김밥’으로 나타났다. 기호도는 높으나 섭취빈도가 낮은 것은 ‘햄버거’, ‘피자’, ‘감자튀김’, ‘우동’으로 나타났다.

4. 음료에 대한 선호도 및 섭취빈도

음료에 대한 선호도 및 섭취빈도에 대한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음료에 대한 전체적인 선호도는 ‘과일주스’ > ‘밀크 셰이크’ > ‘이온음료’ > ‘우유 및 유제품’ > ‘비타민 음료’ > ‘식혜/수정과’ > ‘탄산음료’ > ‘녹차’ > ‘커피’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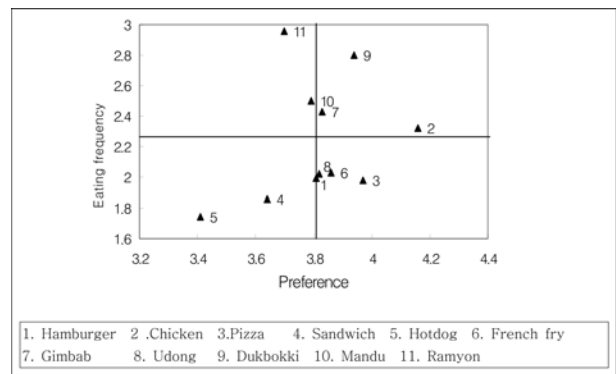


Fig. 1. Analysis of preference and intake frequency of fast food.

탄산음료’(p < 0.01), ‘이온음료’(p < 0.05), ‘비타민 음료’(p < 0.05), ‘우유 및 유제품’(p < 0.05)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녹차에서만 유의적(p < 0.05)으로 선호도 점수가 높았다. 중·고등학생에 따른 차이에서, ‘우유 및 유제품’과 ‘탄산음료’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유의적(p < 0.01)으로 선호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Table 3. Preference and intake frequency of beverage by gender and school

Item		Gender			School			Total
		Male	Female	t-value	Middle	High	t-value	
Preference	Carbonated drink	3.67 ± 1.03 ¹⁾	3.45 ± 1.05	2.629**	3.54 ± 1.06	3.58 ± 1.04	0.480	3.56 ± 1.05
	Isotonic beverage	3.97 ± 0.90	3.80 ± 0.85	2.365*	3.77 ± 0.89	4.00 ± 0.85	3.223**	3.89 ± 0.87
	Fruit juice	4.18 ± 0.89	4.21 ± 0.73	0.496	4.10 ± 0.84	4.30 ± 0.78	2.979**	4.19 ± 0.82
	Vitamin drink	3.83 ± 0.91	3.60 ± 0.92	2.973*	3.64 ± 0.93	3.79 ± 0.90	2.028*	3.71 ± 0.92
	Milk-Dairy product	4.06 ± 0.98	3.71 ± 1.04	4.225*	3.82 ± 1.09	3.95 ± 0.95	1.632	3.88 ± 1.02
	Coffee	2.95 ± 1.29	2.83 ± 1.10	1.127	2.64 ± 1.20	3.14 ± 1.14	5.184**	2.88 ± 1.19
	Green tea	3.14 ± 1.16	3.38 ± 1.11	2.499*	3.12 ± 1.16	3.41 ± 1.09	3.182**	3.26 ± 1.13
	Sikhe / Sujeonggwa	3.66 ± 1.20	3.58 ± 1.03	0.853	3.50 ± 1.14	3.75 ± 1.09	2.661**	3.62 ± 1.12
	Milkshake	3.95 ± 1.01	3.91 ± 0.95	0.465	3.79 ± 1.00	4.07 ± 0.93	3.513**	3.92 ± 0.98
	Total	3.71 ± 0.54	3.60 ± 0.53	2.501*	3.54 ± 0.54	3.77 ± 0.50	5.615**	3.66 ± 0.53
Intake frequency	Carbonated drink	3.34 ± 1.44	3.04 ± 1.39	2.600**	3.09 ± 1.42	3.30 ± 1.43	1.730	3.19 ± 1.42
	Isotonic beverage	3.29 ± 1.39	2.91 ± 1.32	3.399**	2.86 ± 1.36	3.35 ± 1.34	4.307**	3.10 ± 1.37
	Fruit juice	3.37 ± 1.30	3.39 ± 1.33	0.195	3.29 ± 1.34	3.48 ± 1.28	1.732	3.38 ± 1.31
	Vitamin drink	2.75 ± 1.39	2.43 ± 1.34	2.813**	2.46 ± 1.34	2.75 ± 1.39	2.559*	2.59 ± 1.37
	Milk-dairy product	4.26 ± 1.20	4.04 ± 1.37	2.082*	4.07 ± 1.39	4.24 ± 1.17	1.584	4.15 ± 1.29
	Coffee	2.35 ± 1.50	2.04 ± 1.41	2.563*	1.75 ± 1.24	2.66 ± 1.53	7.852**	2.18 ± 1.46
	Green tea	2.47 ± 1.45	2.63 ± 1.55	1.284	2.31 ± 1.48	2.81 ± 1.49	4.085**	2.55 ± 1.50
	Sikhe / Sujeonggwa	2.08 ± 1.20	1.97 ± 1.18	1.194	1.89 ± 1.18	2.16 ± 1.19	2.717**	2.02 ± 1.19
	Milkshake	2.13 ± 1.24	2.02 ± 1.13	1.150	2.02 ± 1.22	2.14 ± 1.15	1.224	2.07 ± 1.18
	Total	2.88 ± 0.76	2.71 ± 0.77	2.688*	2.62 ± 0.73	2.98 ± 0.78	5.369**	2.80 ± 0.77

*: p < 0.05 , **: p < 0.01, 1) Mean ± SD

음료에 대한 섭취빈도에서, 전체적인 섭취빈도는 ‘우유 및 유제품’ > ‘과일주스’ > ‘탄산음료’ > ‘이온음료’ > ‘비타민 음료’ > ‘녹차’ > ‘커피’ > ‘밀크셰이크’ > ‘식혜/수정과’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탄산음료’ (p < 0.01), ‘이온음료’ (p < 0.01) ‘비타민 음료’ (p < 0.01), ‘우유 및 유제품’ (p < 0.05), ‘커피’ (p < 0.05)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섭취빈도를 보였다. 중·고등학생에 따른 차이에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이온음료’, ‘커피’, ‘녹차’, ‘식혜/수정과’에서 유의적 (p < 0.01)으로 섭취빈도가 높았고, ‘비타민 음료’는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유의적 (p < 0.05)으로 높게 나타났다.

음료에 대한 선호도와 섭취빈도에 대한 격자도 분석 결과를 Fig. 2에 제시하였다. 선호도 및 섭취빈도에 대한 평균점수를 기준축으로 하여 선호도 및 섭취빈도가 평균점수보다 높은 음료류는 ‘이온음료’, ‘과일주스’, ‘우유 및 유제품’으로 나타났고 기호도는 낮으나 섭취빈도가 높은 것은 ‘탄산음료’로 나타났다. 기호도는 높으나 섭취빈도가 낮은 것은 ‘비타민 음료’와 ‘밀크 셰이크’로 나타났다.

5. 패스트푸드 섭취와 사회성, 분노표현

1) 사회성과 분노표현

조사대상자의 사회성 및 분노표현(분노통제, 분노억제, 분노표출)에 대한 결과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성별에 따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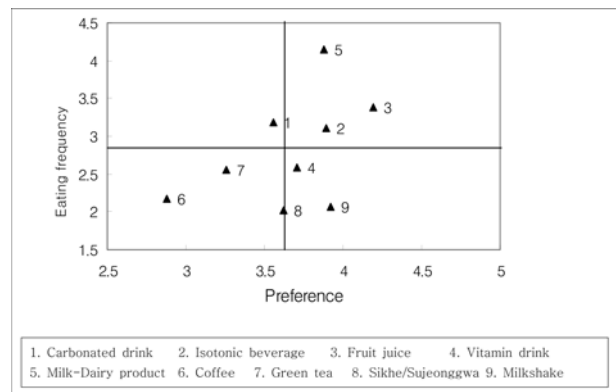


Fig. 2. Analysis of preference and intake frequency of beverage.

차이에서, 사회성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적 (p < 0.05)으로 낮게 나타났고, 분노통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적 (p < 0.01)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분노억제와 공격적인 분노표출에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중·고등학생에 따른 차이에서, 사회성은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유의적 (p < 0.05)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분노통제 (p < 0.01), 분노억제 (p < 0.05) 및 분노표출 (p < 0.01)은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 패스트푸드 및 음료 섭취와 사회성과의 관계

조사대상자의 패스트푸드 및 음료 섭취빈도와 사회성과

의 상관관계에 대한 결과를 Table 5에 제시하였다. 패스트푸드에서는 ‘피자’(r = 0.083, p < 0.05), ‘샌드위치’(r = 0.125, p < 0.01), ‘우동’(r = 0.099, p < 0.05), ‘떡볶기’(r = 0.081, p < 0.05)는 사회성과는 매우 낮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음료에서는 ‘과일주스’(r = 0.103, p < 0.05) ‘식혜/수정과’(r = 0.138, p < 0.05), ‘밀크 셰이크’(r=0.086, p < 0.05) 섭취빈도가 사회성과 매우 낮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패스트푸드 및 음료 섭취빈도가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 결과(Table 6)에서, 설명력(R²)은 0.019~0.038(p < 0.001)로 낮았으나 사회성에는 ‘샌드위치’(β = 0.144, p < 0.001), ‘식혜/수정과’(β = 0.140, p < 0.01), ‘과일주스’(β = 0.105, p < 0.05)가 양의 영향력을 보였고 ‘탄산음료’(β = -0.117, p < 0.001)와 ‘커피’(β = -0.090, p < 0.05)는 음의 영향력을 주어 사회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성별 및 중·고등학생에 따른 패스트푸드 및 음료 섭취가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Table 7)에서, 설명력(R²)은 0.014~0.064로 낮게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샌드위치’(β = 0.134, p < 0.05), ‘식혜/수정과’(β = 0.149, p < 0.05)가 양의 영향력을 주었으나 ‘탄산음료’(β = -0.148, p < 0.05)는 음의 영향력을 주었다. 여학생의 경우, ‘우동’(β = 0.200, p < 0.001), ‘식혜/수정과’(β = 0.184, p < 0.001)가 양의 영향력을 주었으나 ‘커피’(β = -0.128, p < 0.05)는 음의 영향력을 주었다. 중학생은 ‘식혜/수정과’(β = 0.166, p < 0.001)와 ‘과일주스’(β =

0.133, p < 0.05)에서 양의 영향력을 보였으나 ‘커피’(β = -0.140, p < 0.05)와 ‘탄산음료’(β = -0.154, p < 0.05)에서 음의 영향력을 주었다. 고등학생의 경우, ‘샌드위치’(β = 0.183, p < 0.001)와 ‘녹차’(β = 0.146, p < 0.05)에서 양의 영향력이 나타났다.

3) 패스트푸드 및 음료 섭취와 분노표현과의 관계

조사대상자의 패스트푸드 및 음료 섭취빈도와 분노표현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결과를 Table 8에 제시하였다. 패스트푸드 섭취빈도는 분노통제 및 분노억제와는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분노표출은 ‘햄버거’(r = 0.152, p < 0.01), ‘치킨’(r = 0.094, p < 0.05), ‘감자튀김’(r = 0.121, p < 0.01), ‘김밥’(r = 0.126, p < 0.001), ‘만두’

Table 5.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intake frequency of fast food, beverage and sociality

Fast food	Sociality	Beverage	Sociality
Hamburger	0.014	Carbonated drink	-0.079
Chicken	0.012	Isotonic beverage	0.044
Pizza	0.083*	Fruit juice	0.103*
Sandwich	0.125**	Vitamin drink	0.044
Hotdog	0.003	Milk-dairy product	0.002
French fry	0.007	Coffee	-0.057
Gimbab	0.020	Green tea	0.066
Udong	0.099*	Sikhe/Sujeonggwa	0.138*
Dukbokki	0.081*	Milkshake	0.086*
Mandu	0.041		
Ramyon	0.040		

*: p < 0.05, **: p < 0.01; Significant correlation by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r)

Table 4. Sociality and anger expression by gender and school

	Gender			School			Total
	Male	Female	t-value	Middle	High	t-value	
Sociality	14.67 ± 3.44 ¹⁾	15.32 ± 3.35	2.315*	15.34 ± 3.29	14.65 ± 3.49	2.463*	14.99 ± 2.89
Anger-control	19.56 ± 4.56	18.43 ± 4.38	3.055**	18.33 ± 4.59	19.67 ± 4.31	3.639**	18.95 ± 4.45
Anger-in	14.35 ± 3.82	14.05 ± 3.88	0.947	13.53 ± 3.82	14.89 ± 3.76	4.317*	14.21 ± 3.87
Anger-out	15.35 ± 9.01	15.32 ± 4.23	0.074	14.60 ± 3.89	16.12 ± 4.23	4.505**	15.43 ± 4.16

1) Mean ± SD, *: p < 0.05, **: p < 0.01

Table 6. Regression analysis of effect of intake frequency of fast food and beverage on sociality

Dependent variable	Item	Independent variable	β		SE ¹⁾	t	R ²	F value
			Unstandardized	Standardize				
Sociality	Fast food	Constant	14.415		0.294	48.057***	0.019	11.662***
		Sandwich	0.473	0.144	0.138	3.415***		
Beverage		Constant	14.640		0.473	30.959***	0.038	6.436***
		Sikhe / Sujeonggwa	0.401	0.140	0.127	3.168**		
		Fruit juice	0.274	0.105	0.120	2.281*		
		Carbonated drink	-0.280	-0.117	0.107	-2.611***		
		Coffee	-0.212	-0.090	0.102	-2.071*		

*: p < 0.05, **: p < 0.01, ***: p < 0.001, 1) SE: Standard Error

Table 7. Regression analysis of effect of intake frequency of fast food and beverage on sociality by gender and school

Dependent variable	General characteristics	Item	Independent variable	β		SE ¹⁾	t	R ²	F value		
				Unstandardized	Standardize						
Sociality	Male	Fast food	Constant	14.415		0.424	32.552***	0.014	4.954*		
			Sandwich	0.461	0.134	0.138	2.226*				
		Beverage	Constant	13.904		0.418	33.240***			0.030	5.219***
			Sikhe / Sujeonggwa	0.432	0.149	0.175	2.465*				
	Female	Fast food	Constant	14.309		0.451	31.723***	0.031	5.327***		
			Udong	0.580	0.200	0.173	2.910***				
		Beverage	Sikhe / Sujeonggwa	0.513	0.184	0.171	3.001***				
			Coffee	-0.300	-0.128	0.144	-2.086*				
	Middle school	Beverage	Constant	15.157		0.621	24.403***	0.064	5.878***		
			Sikhe / Sujeonggwa	0.463	0.166	0.169	2.733***				
			Coffee	-0.374	-0.140	0.156	-2.395*				
			Carbonated drink	-0.357	-0.154	0.141	-2.541*				
	High school	Fast food	Constant	13.541		0.431	31.435***	0.030	9.193**		
			Sandwich	0.598	0.183	0.197	3.032***				
		Beverage	Constant	13.697		0.450	30.411***			0.018	5.867*
			Green tea	0.345	0.146	0.142	2.422*				

*: p < 0.05, **: p < 0.01, ***: p < 0.001, 1) SE: Standard error

(r = 0.088, p < 0.05), ‘라면’(r = 0.092, p < 0.05)과 낮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음료 섭취빈도에서는, 분노통제는 ‘탄산음료’(r = -0.128, p < 0.01)와는 낮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녹차’(r = 0.144, p < 0.01)와는 낮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분노억제는 ‘커피’(r = 0.107, p < 0.05)와 낮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분노표현은 ‘탄산음료’(r = 0.165, p < 0.01), ‘이온음료’(r = 0.101, p < 0.05), ‘비타민 음료’(r = 0.089, p < 0.05), ‘커피’(r = 0.137, p < 0.01), ‘밀크 셰이크’(r = 0.134, p < 0.05)와 낮은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패스트푸드 및 음료 섭취빈도가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Table 9)에서, 설명력은 0.011~0.041(p < 0.001)로 낮게 나타났다. 패스트푸드 섭취는 분노통제와 분노억제와의 회귀분석에서는 기각되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분노표출에서만 ‘햄버거’(β = 0.140, p < 0.001)가 양의 영향력을 주었다. 음료섭취의 경우, 분노통제에서 ‘탄산음료’(β = -0.152, p < 0.001)는 음의 영향력을 주었고, ‘커피’(β = 0.094, p < 0.05)는 양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노억제에서 ‘커피’(β = 0.112, p < 0.01)는 양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분노표출의 경우, “탄산음료”(β = 0.140, p < 0.001)와 ‘커피’(β = 0.101, p < 0.01)는 양의 영향력을 나타냈다.

성별 및 중·고등학생에 따른 패스트푸드 및 음료 섭취가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Table 10)에서, 설명

Table 8.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intake frequency of fast food, beverage and anger expression

		Anger-control	Anger-in	Anger-out
Fast food	Hamburger	0.006	-0.055	0.152*** ¹⁾
	Chicken	-0.008	-0.081	0.094*
	Pizza	-0.038	0.058	0.028
	Sandwich	-0.028	0.086	0.049
	Hotdog	-0.069	-0.052	0.020
	French fry	0.006	0.073	0.121**
	Gimbab	-0.011	0.031	0.126**
	Udong	-0.001	-0.043	0.067
	Dukbokki	-0.041	-0.056	0.075
	Mandu	-0.005	0.072	0.088*
	Ramyon	0.030	-0.035	0.092*
Beverage	Carbonated drink	-0.128	0.010	0.165**
	Isotonic beverage	0.008	-0.016	0.101*
	Fruit juice	-0.020	-0.029	0.032
	Vitamin drink	0.029	0.013	0.089*
	Milk-dairy product	0.052	-0.026	0.016
	Coffee	0.097	0.107*	0.137**
	Green tea	0.144	0.083	0.046
	Sikhe / Sujeonggwa	0.043	0.029	0.035
	Milkshake	-0.067	0.069	0.134*

1) *: p < 0.05, **: p < 0.01 : Significant correlation by Pe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r)

력(R²)은 0.016~0.076로 낮게 나타났다. 분노통제는 ‘녹차’가 남학생(β = 0.157, p < 0.001)과 여학생(β = 0.147,

Table 9. Regression analysis of effect on intake frequency of fast food, beverage on anger expression

Dependent variable	Item	Independent variable	β		SE ¹⁾	t	R ²	F-value
			Unstandardized	Standardized				
Anger-control	Beverage	Constant	19.052		0.573	33.274	0.041	8.836***
		Carbonated drink	-0.482	-0.152	0.135	-3.563***		
		Green tea	0.356	0.118	0.130	2.731**		
Anger-in	Beverage	Constant	13.506		0.292	46.234	0.011	6.951***
		Coffee	0.296	0.112	0.112	2.637**		
Anger-out	Fast food	Constant	14.141		0.398	35.526	0.018	10.937***
		Hamburger	0.596	0.140	0.180	3.307***		
	Beverage	Constant	13.382		0.420	32.915		
		Carbonated drink	0.400	0.140	0.122	3.270***	0.032	10.106***
		Coffee	0.285	0.101	0.121	2.355**		

*: p < 0.05, **: p < 0.01, ***: p < 0.001, 1) SE: Standard error

Table 10. Regression analysis of effect of intake frequency of fast food and beverage on anger expression by gender and school

Dependent variable	General characteristics	Item	Independent variable	β		SE	t	R ²	F value
				Unstandardized	Standardize				
Anger-control	Male	Beverage	Constant	20.043		0.821	24.404***	0.041	6.817***
			Green	0.493	0.157	0.186	2.646***		
			Carbonated drink	-0.482	-0.153	0.187	-2.574**		
	Female	Beverage	Constant	18.768		0.764	24.564***	0.035	5.982**
			Green	0.418	0.147	0.169	2.473*		
			Carbonated drink	-0.454	-0.143	0.188	-2.411*		
	High school	Beverage	Constant	17.852		1.083	16.483***	0.062	9.833***
			Milk	0.761	0.206	0.219	3.476***		
			Milkshake	-0.596	-0.158	0.223	-2.668**		
Anger-in	Male	Fast food	Constant	14.787		0.671	22.028***	0.023	4.150**
			Pizza	-0.771	-0.168	0.295	-2.626***		
	Female	Beverage	Constant	12.687		0.472	26.887***	0.028	8.990**
			Milkshake	0.615	0.178	0.205	2.998**		
Anger-out	Male	Fast food	Constant	13.947		0.542	25.733***	0.024	7.532***
			Mandu	0.518	0.165	0.189	2.744**		
	Female	Fast food	Constant	13.831		0.606	22.838***	0.023	7.495**
			Hamburger	0.776	0.165	0.284	2.738**		
			Beverage	Constant	12.072		0.700	17.255***	0.076
			Carbonated drink	0.677	0.220	0.182	3.720***		
			Milkshake	0.584	0.153	0.226	2.586**		
	Middle School	Fast food	Constant	13.446		0.562	25.587***	0.018	6.082**
			Ramyon	0.401	0.145	0.162	2.466**		
			Beverage	Constant	13.412		0.550	24.387***	0.016
		Carbonated drink	0.386	0.139	0.163	2.369*			
High school	Beverage	Constant	13.498		0.723	18.679***	0.045	7.284***	
		Milkshake	0.605	0.170	0.218	2.778**			
		Carbonated drink	0.368	0.128	0.175	2.100*			

*: p < 0.05, **: p < 0.01, ***: p < 0.001, 1) SE: Standard error

p < 0.05) 모두에서 양의 영향력을 나타냈으나 ‘탄산음료’는 남학생 (β = -0.153, p < 0.01) 과 여학생 (β = -0.143,

p < 0.05) 모두에서 음의 영향력을 보였다. 중학생에서 대한 회귀분석은 기각되어 영향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으나 고등학생에서, ‘우유’($\beta = 0.1206, p < 0.001$)는 양의 영향력을, ‘밀크 셰이크’($\beta = -0.158, p < 0.01$)는 음의 영향력을 보였다. 분토역제에서, 남학생은 ‘피자’($\beta = -0.168, p < 0.001$)가 음의 영향력을 주었다. 여학생은 ‘밀크 셰이크’($\beta = 0.178, p < 0.01$)가 양의 영향력을 주었다. 중·고등학생에 대한 분노통제 회귀분석은 기각되어 영향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노표출에서는 남학생은 ‘만두’($\beta = 0.165, p < 0.001$)에서, 여학생은 ‘햄버거’($\beta = 0.165, p < 0.001$), ‘탄산음료’($\beta = 0.220, p < 0.001$), ‘밀크 셰이크’($\beta = 0.153, p < 0.01$)에서 양의 영향력을 보였다. 중학생은 ‘라면’($\beta = 0.145, p < 0.01$), ‘탄산음료’($\beta = 0.139, p < 0.05$)에서, 고등학생은 ‘밀크 셰이크’($\beta = 0.170, p < 0.01$), ‘탄산음료’($\beta = 0.128, p < 0.05$)에서 양의 영향력을 나타냈다.

고 찰

중·고등학생들은 바쁜 일과와 결식 등으로 인해 식사를 패스트푸드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 패스트푸드는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빨리, 간편하게 먹는 습관은 학생들의 인성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 학생들에게 바른 식생활에 대한 교육은 더욱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고등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패스트푸드와 음료에 대한 섭취빈도가 학생들의 사회성, 분노표현 등의 인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패스트푸드에 대한 선호도 및 섭취빈도에 대한 본 연구에서, 선호도는 ‘치킨’, ‘피자’의 순이었고 섭취빈도는 ‘라면’, ‘떡볶이’의 순으로 나타났다. Her 등(2007)의 연구에서, 조사대상 학생들의 패스트푸드 선호도는 ‘치킨’, ‘피자’의 순이었고 섭취빈도는 ‘라면’과 ‘떡볶이’가 같은 순위로 가장 많이 섭취하고 있어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청소년들은 서양식 패스트푸드 보다는 ‘라면’, ‘떡볶이’ 등의 한국식 패스트푸드 섭취를 더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서양식 패스트푸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으나 한국식 패스트푸드인 ‘라면’, ‘떡볶이’ 등에 대한 중·고등학생의 기호도 및 섭취빈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식 패스트푸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또한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섭취 방법에 대한 영양교육이 필요하겠다.

음료에 대한 선호도 및 섭취빈도에 대한 본 연구에서, 선호도 순위는 선호도는 ‘과일주스’, ‘밀크셰이크’, ‘이온음료’의 순이었고 ‘탄산음료’에 대한 선호도 순위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섭취빈도 순위는 ‘우유 및 유제품’, ‘과일주스’, ‘탄

산음료’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탄산음료’의 경우, 선호도에 비해 섭취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ho & Kim(1999)의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청소년의 ‘탄산음료’의 섭취빈도가 가장 높았다고 보고하였으나 Song 등(2005)의 연구에서는 ‘우유 및 유제품’의 섭취빈도가 가장 높았고, Her 등(2008)의 연구에서도 ‘우유 및 유제품’과 ‘과일주스’의 섭취빈도가 높게 나타나 학생들이 섭취하는 음료의 종류가 변하고 있다고 사려할 수 있겠다. 이는 2000년대에 들어와 국민들이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웰빙과 관련된 음료도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환경 변화들이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패스트푸드 및 음료 섭취빈도와 사회성과의 관련성에서, 패스트푸드의 경우, ‘피자’, ‘샌드위치’, ‘우동’, ‘떡볶이’ 섭취빈도와 낮은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음료의 경우, ‘과일주스’, ‘식혜/수정과’, ‘밀크셰이크’ 섭취빈도와 낮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패스트푸드의 경우, ‘샌드위치’가 사회성에 약한 양의 영향력을 주었고 음료의 경우, ‘식혜/수정과’, ‘과일주스’가 낮은 양의 영향력을 주었고 ‘탄산음료’와 ‘커피’는 낮은 음의 영향력을 보였다. Her 등(2008)의 연구에서는 음료섭취 빈도가 사회성에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이온음료’, ‘녹차’, ‘식혜/수정과’는 약간의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패스트푸드 및 음료 섭취빈도와 분노표현과의 관련성에서, 패스트푸드 섭취빈도는 분노통제 및 분노억제와는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분노표출은 ‘햄버거’, ‘치킨’, ‘감자튀김’, ‘김밥’, ‘만두’, ‘라면’과는 매우 낮은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음료 섭취빈도에서, ‘탄산음료’는 분노통제에서는 낮은 음의 상관관계를, 분노표출에서는 낮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햄버거’가 분노표출에 양의 영향력을 보였고, ‘탄산음료’는 분노통제에는 음의 영향력을, 분노표출에는 양의 영향력을 나타냈다. Seo(1992)의 연구에서는 패스트푸드 이용집단이 충동성과 사회성이 높고 안정성이 낮다고 보고하였고, Choi(2005)는 패스트푸드 이용횟수가 많을수록 적대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Her 등(2007)의 연구에서도 패스트푸드 섭취는 분노억제와는 상관성이 없으나 분노표출에는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으며, Gutfeld & Rao(1993)도 지방이 많은 간식과 단 음식 등은 부정적인 기분을 느끼게 한다고 보고하였다. Chung & Park(1995)의 연구에서, 간식을 통한 설탕섭취가 많은 학생들이 과잉활동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고, Her 등(2008)의 연구에서, ‘탄산음료’가 분노표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

고하여 ‘탄산음료’가 학생들의 인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사려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도 ‘탄산음료’ 섭취빈도는 분노통제에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분노표출에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고 있음을 볼 때, 패스트푸드 섭취를 많이 학생들이 자기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언어나 행동으로 표출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조사대상은 부산지역 중·고등학생 599명(중학생 305명, 고등학생 294명)을 대상으로 패스트푸드 및 음료에 대한 섭취빈도와 사회성 및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패스트푸드에 대한 선호도 점수는 치킨이 가장 높았고 섭취빈도 점수는 라면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선호도 및 섭취빈도가 평균점수보다 높은 것은 ‘치킨’, ‘떡볶기’, ‘만두’이고, 기호도는 낮으나 섭취빈도가 높은 것은 ‘라면’, ‘김밥’이며, 기호도는 높으나 섭취빈도가 낮은 것은 ‘햄버거’, ‘피자’, ‘감자튀김’, 우동으로 나타났다.

2. 음료에 대한 선호도 점수는 과일주스가 가장 높았고 섭취빈도 점수는 ‘우유 및 유제품’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선호도 및 섭취빈도가 평균점수보다 높은 것은 ‘이온음료’, ‘과일주스’, ‘우유 및 유제품’이고, 기호도는 낮으나 섭취빈도가 높은 것은 ‘탄산음료’이며, 기호도는 높으나 섭취빈도가 낮은 것은 ‘비타민 음료’와 ‘밀크셰이크’로 나타났다.

3. 사회성은 ‘피자’($p < 0.05$), ‘샌드위치’($p < 0.01$), ‘우동’($p < 0.05$), ‘떡볶기’($p < 0.05$), ‘과일주스’($p < 0.05$) ‘식혜/수정과’($p < 0.05$), ‘밀크셰이크’($p < 0.05$) 섭취빈도와 낮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사회성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것은 ‘샌드위치’($\beta = 0.144$), ‘식혜/수정과’($\beta = 0.140$), ‘과일주스’($\beta = 0.105$)이고, 부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것은 ‘탄산음료’($\beta = -0.117$), ‘커피’($\beta = 0.090$)로 나타났다. 남학생($\beta = -0.153$)과 중학생($\beta = -0.143$)에서도 ‘탄산음료’는 사회성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4. 패스트푸드 섭취빈도는 분노통제 및 분노억제와는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분노표출은 ‘햄버거’($p < 0.01$), ‘치킨’($p < 0.05$), ‘감자튀김’($p < 0.01$), ‘김밥’($p < 0.001$), ‘만두’($p < 0.05$), ‘라면’($p < 0.05$)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패스트푸드 섭취는 분노통제와 분노억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분노표출에 ‘햄버거’($\beta = 0.140$)가 영향력을 보였으며, 특히 여학생에게 영향력이 있었고, ‘라면’($\beta = 0.145$)은 중학생의 분노표출에 영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음료 섭취빈도에서, 분노통제는 ‘탄산음료’($p < 0.01$)와 낮은 음의 상관관계를, ‘녹차’($p < 0.01$)와는 낮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분노표출은 ‘탄산음료’($p < 0.01$), ‘커피’($p < 0.01$)와 낮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음료섭취가 분노표현에 미치는 설명력은 낮았으나 ‘탄산음료’($\beta = -0.152$)는 분노통제에 음의 영향력을 주었고 커피($\beta = 0.112$)는 분노억제에 양의 영향력을 주었다. 분노표출에는 ‘탄산음료’($\beta = 0.140$)와 ‘커피’($\beta = 0.101$)가 양의 영향력을 보여 ‘탄산음료’와 ‘커피’ 섭취빈도가 높은 학생들이 분노표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탄산음료’ 섭취가 분노통제($\beta = -0.143$)에 음의 영향력을, 분노표출($\beta = 0.220$)에는 양의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패스트푸드 및 음료 섭취빈도는 청소년의 사회성 및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특히 분노표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고등학생들의 패스트푸드 및 음료 섭취 양상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지만 아직 청소년들은 패스트푸드 및 음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식품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중·고등학생은 초등학생과 달리 본인이 스스로 음식에 대한 선택을 많이 하므로 현재 이들에게 올바른 식품 선택을 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학생들이 건강한 인성을 지닌 사회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그리고 한국식 패스트푸드에 대한 섭취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한국식 패스트푸드와 학생들의 건강 및 인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폭 넓은 연구가 필요하겠다.

참고 문헌

- Baric IC, Cvjetic S, Satalic Z (2001): Dietary intakes among Croatian schoolchildren and adolescents. *Nutrition and Health* 15(2): 127-138
- Cambridge Learner's Dictionary. <http://dictionary.cambridge.org>.
- Chen C, Lachance P (1974): An area of concern; the nutritional profile of fast food meal combination. *Food prod develop* 8(1): 40-48
- Cho HS, Kim YO (1999): The study on Korean youth's status of beverage consumption and preference of beverage in Chunnam area. *Korean J Food Nutr* 12(5): 536-542
- Cho JM, Han YB (1996): Dietary behavior and fast-foods use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Seoul. *Korean J Home Economics Educ Assoc* 8(1): 105-119
- Choi DS (2005): Fast food consumption &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MS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Chon KK, Hahn DW, Lee CH (1998): Korean adaptation of the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K): the case of

- college students. *Korean J. Health Psychology* 2(3): 18-32
- Chon KK (1996): Development the Korean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II). *The Korean J Rehabilitation Psychology* 3(1): 53-69
- Christine AM, Cheryl LR, Elisa JS, Marian LN (2001): Children's pattern of macronutrient intake and associations with restaurant and home eating. *J Am Diet Assoc* 101(9): 923-925
- Chung HK, Park SS (1995): The effect of sugar intake on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of school children. *Korean J Nutr* 28(7): 644-652
- Gutfeld G, Rao L (1993): Move your moods. *Prevention* 45(1): 8-9
- Her ES, Lee KH, Bae EY, Lyu ES (2007): Interrelations among fast food intake, food behavior, and personality in adolescent. *Korean J Community Nutr* 12(6): 714-723
- Her ES, Lee KH, Bae EY, Lyu ES (2008): Interrelations among beverage intake, food behavior and personality in adolescents. *Korean J Community Nutr* 13(2): 176-188
- Jacobson MF (2005): Liquid candy: how soft drinks are harming Americans' health. *Nutrition Action Healthletter* 7(8): 2
- Jeong JH, Kim SH (2001): A survey of dietary behavior and fast food consumption by highschool students in Seoul. *Korean J Home Economics Assoc* 39(2): 111-124
- Kang BS, Park MS, Cho YS, Lee JW (2006): Beverage consumption and related factors among adolescents in the Chungnam urban area. *Korean J Community Nutr* 11(4): 469-478
- Kim KN (1982):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food habits and personality. *Korean J Nutrition* 15(3): 194-201
- Kim KN, Park EJ (2005): Nutrient density of fast-food consumed by the middle school students in Cheongju city. *Korean J Community Nutr* 10(3): 271-280
- Lyu, ES, Lee KA, Yoon JY (2006): The fast foods consumption patterns of secondary school students in Busan area. *J Korean Soc Food Sci Nutri* 35(4): 448-455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2): Report on 2001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http://www.khidi.or.kr>)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6): Report on 2005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http://www.khidi.or.kr>)
- Nunnally JC (1967): Psychometric theory. McGraw-hill Book Co., NY. pp. 55-56
- Park MR (1999): A study on beverage consumption pattern and image of college students. *J East Asian Society Dietary Life* 9(4): 501-513
- Pollitt E (1994): Poverty and child development: Relevance of research in developing countries to the United States. *Child Development* 65(1): 283-295
- Seo YS (1992): A study on the dietary habit of fast food and personality of juvenile. M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 Shannon BM, Parks SC (1980): Fast foods: a prospective on their nutritional impact. *J Am Diet Assoc* 76(2): 242-247
- Song MJ, An EM, Shon HS, Kim SB, Cha YD (2005): A study on the status of beverage consumption of the middle school students in Jeonju. *Korean J Community Nutr* 10(2): 174-182
- 이상로, 변창진, 진위교 (2000): 표준화 성격진단검사, 중앙적성연구소, 서울
- 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청소년 건강과 탄산음료 - 과다한 섭취에 따른 건강상 위해 및 국제외국의 규제실태를 중심으로. 한국산업보건진흥원
- 장유진 (2007): 웰빙버거로 인기몰이, 식품위식경제신문 10월 10일자
- 최난주 (2003): 패스트푸드의 영양함량 및 섭취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소비자보호원 pp. 13-27